

대학스포츠 06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 | 2014. 02. 25.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3대 장호성 회장 취임 인터뷰

KUSF 주요 사업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 행·재정 지원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사 지원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인터뷰

명지대 송준호, 고려대 이승현, 한양대 안정경 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대학스포츠 06 표지모델 - 안정경

CONTENTS

Vol. 6



대학스포츠
발행일 2014년 02월 25일
발행인 장호성
발행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TEL 02-707-3767
FAX 02-707-3766
www.kusf.or.kr



인터뷰

- 04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3대 장호성 회장 취임 인터뷰

KUSF 주요행사

- 06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07 2013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 홍보 대학 시상식 거행

KUSF 주요사업

- 08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사업 실적
09 2014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신규 사업 계획

대학리그

- 10 2013 카페베네 U리그 하반기 결산
14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하반기 결산
18 2013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하반기 결산

KUSF 주요행사

- 22 2013년도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
24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개발 세미나

KUSF 주요사업

- 26 선수촌 입촌 학생선수 학사지원 사업
27 KUSF 사무처

KUSF 주요활동

- 28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찬 간담회
NCAA 사례 중심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29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학생선수 인터뷰

- 30 명지대 축구부 송준호
32 고려대 농구부 이승현
34 한양대 배구부 안정경
36 호서대 축구부 한상협
37 동국대 축구부 정찬일
38 명지대 농구부 강호연
39 고려대 농구부 김지후
40 충남대 배구부 김한결
41 경기대 배구부 김영민
42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3대 장호성 회장 취임 인터뷰



2014년 2월 1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제3대 장호성 회장이 취임했다.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KUSF 제2대
회장직을 수행하며 KUSF를 이끈 장호성
회장은 2013년 12월 20일 개최된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만장일치로 재선임을 받아 앞으로 2년간 더
KUSF를 이끌게 됐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3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2대 회장을 지내신 데 이어 제
3대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취임 소감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를 재선임해주신 우리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학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지난 2년간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여러 가지 일
을 추진했습니다. 회원대학 총장님들과 대학스포
츠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대학스포츠 정
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이 일환으로 대
학스포츠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
하기 위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을 진행하
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협의회 설립 3주년을
계기로 각 언론사 체육 부장님들을 모시고 협의회
의 그간 성과를 알리기도 했고, 체육계 원로님들
을 모시고 협의회 비전에 대한 고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스포츠를 진흥하려다 보니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우리 협의회 회원대학과 협의회에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회원대학 총장님들께서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대학스포츠를 향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학스포츠 위기’ 관련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역할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학스포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복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각 대학 상황이 무척 어렵습니다. 대학은 대학종합평가, 대학구조조정, 반값등록금 등 당장 풀어야 할 문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각 대학 상황이 어렵다보니 대학스포츠도 대학운동부 폐지, 대학체육특기자 선발 축소 움직임 등 그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스포츠는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젖줄입니다. 초·중·고 학교체육의 표상이자 프로·실업스포츠의 가교로서 그 영향이 상당하기에 각 대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감으로 대학운동부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각 대학의 사명감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대학운동부 육성에 힘쓰는 대학이 그 노고를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학종합평가에 ‘대학스포츠’ 부문 신설을 추진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대학운동부 육성이 활발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스포츠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각 계각층에서 이 운영 규정을 주목하고 있고, 운영 규정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이 운영 규정의 제정과 시행 등에 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협의회 회장 취임 후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간담회를 갖고 각 대학 총장님들의 뜻을 모아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운영 규정 제정을 진행 중인데, 예정보다 다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 규정 제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각 대학 대부분이 대학운동부 자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스포츠가 대학 간 경기, 학생선수 선발,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경기지도자 처우, 대학스포츠 마케팅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이는 어느 일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을 생각할 때, 대학스포츠 전반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은 꼭 필요하다는 데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학스포츠계가 공감하고,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규정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영 규정 제정 후 시행과 준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의회도 이 운영 규정 제정과 시행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운영 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 회원대학도 운영 규정 제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이 운영 규정이 시행되면 철저하게 따라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운영 규정 도입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대학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2014년도에는 몇몇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대학운동부 운영 대학 행·재정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학종합평가에 ‘대학운동부’ 부문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대학운동부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학운동부 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이 중심입니다.

스스로 풀어나가는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각 대학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대학스포츠의 선진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도 사명감으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스포츠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학스포츠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운영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몇몇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대학운동부 운영 대학 행·재정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학종합평가에 ‘대학운동부’ 부문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대학운동부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학운동부 지원을 위한 지표 개발이 중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협의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을 이루고자 대학 학생선수 학사·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선수촌 내 강의를 개설합니다. 또한, 협의회의 사업 영역을 넓혀 대학스포츠 국제 교류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2013년 12월 20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정기총회」가 열렸다. 장호성 KUSF 회장(단국대 총장)을 비롯하여 KUSF 회원대학 총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김 중 제2차관이 자리한 가운데, 체육계 원로와 KUSF 집행위원 및 분과위원, 회원대학 체육위원(부·실)장 및 경기지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호성 KUSF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은 개회사로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장호성 회장은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정부와 각 대학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대학 간 경쟁 심화로 대학 운동부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엘리트선수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육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각 대학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비전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대학 운동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USF 제2대 장호성 회장, 만장일치 재신임받아 제3대 회장으로 선출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은 장호성 KUSF 제2대 회장의 임기가 2014년 1월 31일부로 끝남에 따라 2월 1일부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제3대 회장의 선출이었다. KUSF 이사인 상명대 구기현 총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된 회장 선출에서 지난 2년간 KUSF 제2대 회장으로 재임하며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이끈 장호성 회장이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아 KUSF 제3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장호성 회장은 “회장으로 재신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로 수락 인사를 시작했다. 이어 “각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에 힘입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그간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만큼이나 규정 준수가 더 어렵고 또 중요한 만큼, 도입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각 대학이 노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며 수락 인사를 마쳤다.

201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의결



신임 회장 선출에 앞서 KUSF 김성태 사무국장의 2013년 주요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14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이날 총회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등 6건의 2013년 주요 사업 실적과 결산(안) 및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 지원 사업 등 9건의 2014년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집행위원 구성과 기능 확대, 사무국 명칭 사무처로 변경 등 정관 일부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회에 이어 곧바로 2013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식이 있었다. KUSF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에 공이 큰 우수 지도자를 2012년부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모범이 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2011년부터 선발하고 있다.

2013학년도 우수 지도자로는 축구 송명원 감독(동의대), 농구 이민형 감독(고려대)이 선발되었고, 표창패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었다. 2013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는 축구 송준호(명지대 3), 농구 이승현(고려대 3), 배구 안정경(한양대 3)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축구 한상협(호서대 4), 정찬일(동국대 4), 농구 강호연(명지대 2), 김지후(고려대 3), 배구 김한결(충남대 3), 김영민(경기대 2)이 우수상을 받았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최우수상

2013학년도 우수 지도자 및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 홍보 대학 시상식 거행



에는 표창패와 상금 200만 원이, 우수상에는 표창패와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이와 더불어 KUSF는 올해 처음으로 대학스포츠 리그 우수 홍보 대학을 선발, 시상했다.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리그 홍보에 노력을 기울인 대학을 선발했으며, 리그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대학농구연맹, 대학배구연맹의 추천과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투표, SNS를 활용한 대학생 투표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종목별 최우수 1개 대학, 우수 1개 대학, 총 6개 대학을 선발했다. 그 결과 2013학년도 최우수 홍보 대학으로 축구 영남대, 농구 연세대, 배구 명지대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우수 홍보 대학으로 축구 고려대, 농구 한양대, 배구 한양대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사업 실적 및 신규사업계획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3년 12월 20일,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13년 주요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14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승인한 2013년 주요 사업 실적과 2014년 주요 사업 계획 중 신규 사업 계획을 간략히 정리한다.

2013년도 주요 사업 실적

(1) 대학스포츠 리그 운영 지원 사업

KUSF는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비 지원과 함께 리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대학축구리그(U리그)는 지난해보다 4개 대학이 늘어난 76개 대학이 참가, 영남대가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쥐었고, 대학농구리그는 12개 대학이 참가, 2011, 2012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한 경희대가 왕좌에서 물러나고 고려대가 왕좌의 새 주인이 되었다. 대학배구리그는 지난해보다 3개 대학이 늘어난 11개 대학이 참가, 경희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KUSF는 리그 운영비 지원과 함께 리그 마케팅 사업, 리그 기록실 운영 등 리그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특히, 2013년 대학스포츠 히트 상품인 대학농구리그의 열기를 더하고자 대학생 참여 마케팅 · 홍보 활동 지원을 기획했다. 대학농구리그 참가 12개 대학 중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4개 대학이 KUSF의 대학생 참여 마케팅 · 홍보 활동에 동참, 대학생 참여 문화 조성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 대학스포츠 리그 우수 홍보 대학을 발굴, 시상했다. 또한, 기존 대학농구리그 기록실 운영과 더불어 신규 대학배구리그 기록실 운영을 더해 리그의 수준을 높이고자 힘썼다. 한편, KUSF는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 도입 3년 차를 맞아 대학스포츠 리그제 실상과 발전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2) 대학스포츠 리그 기반 구축 사업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2013년, 대학스포츠TV는 한층 성장했다. 개국 첫해보다 200% 늘어난 132경기를 중계했고, 그중 101경기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중계하며, 대학스포츠를 알렸다. 대학스포츠TV 시청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대학농구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 고려대와 경희대 경기는 3만 명 이상이 시청했으며, 총 42만 여명이 시청했다.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

KUSF는 대학스포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 ·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그 결과, 대학스포츠 블로그의 연간 방문자는 40만 명을 돌파, 전년대비 55%가 증가했으며, 대학스포츠 페이스북 페이지 팬은 650명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무려 30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학스포츠 정기 소식지는 회원대학, 비회원대학, 체육 교수, 체육 유관 기관 등에 더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배부하여 대학스포츠의 현안을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KUSF는 지난해 설립 3주년을 맞아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개발했으며, 설립 3주년 계기 언론사 체육 부장 간담회, 체육 원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학스포츠 현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힘썼다.

대학스포츠 마케팅 사업

대학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대학생 마케팅 · 홍보 활동을 지원했다. 대학농구리그 참가 12개 대학 중 4개 신청 대학에 지원금을 지원했다.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재학생이 마케팅 ·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한 결과, 이 4개 대학 홈경기 관중이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3)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KUSF는 대학스포츠의 선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 9월 공모를 거쳐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연구자로 개발하고 있다. 2013년 6월 규정 중간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42회 학술대회 시 주제 발표를 진행했고, 이후 9월과 12월에 각각 KUSF 주관으로 이 운영 규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2014년도 신규 사업 계획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 행·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

대학스포츠는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도 엘리트스포츠를 견인해 왔으나, 최근 각 대학이 각종 평가의 압박으로 경영합리화에 힘쓰는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대학운동부가 축소되는 등 대학스포츠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반값등록금 등의 사회 분위기와 정부 주관 대학평가 대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지표 미반영 등으로 대학운동부에 대한 대내외적 행·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KUS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정부 주관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 나가는 한편,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 지원의 기준이 될 자체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대학경기지도자 교육 강화

대학경기지도자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참여 대학의 해당 종목 경기지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을 확대해 전 대학의 전 종목 경기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소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 조사

대학스포츠는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젖줄이자 초·중·고 학교체육의 표상으로서 대학스포츠 시스템 정립은 초·중·고 학교체육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올바른 대학스포츠 시스템 정립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대학스포츠 운영 실태 관련 자료가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존재하더라도 각 대학, 각 종목 협회, 시·도 체육회 등에 흩어져 있어 통계 수치가 상이한 경우도 있어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신뢰도와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에 KUSF는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학스포츠 기본 운영 현황, 대학운동부, 대학 학생선수 관련 현황, 시설 현황 등 대학스포츠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해 대학스포츠 시스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 학사지원

우리나라 초·중·고·대학의 엘리트스포츠는 승리 지상주의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 병행 의지가 있어도 사실상 이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은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 사회에서 대학 학생선수는 대부분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유망한 학생선수라도 예기치 못한 부상 등으로 중도 탈락 또는 은퇴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사회 문제로도 대두하고 있다.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학생선수 양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KUSF는 2014년부터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 학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체육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선수촌(태릉, 진천) 내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고,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가 이 강의를 수강하면 소속 대학 학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주 내용이다.

아시아 대학스포츠 국제 교류 지원 사업

대학스포츠는 대학스포츠 활동을 통한 교육을 바탕으로 한 대학 학생의 아마추어리즘 고양을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대학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선수의 지성과 인성 교육을 통해 이들을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춘 전인적 스포츠 인재로 길러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경험 체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국제 스포츠 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대학스포츠를 통한 교육과 교류의 장인 유니버시아드처럼 대학스포츠가 중심이 되는 무대에 대학 학생선수들이 참가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제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KUSF는 대학 학생선수들에게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아시아 대학스포츠 챔피언십 참가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간 교류의 장에 대학 학생선수들의 참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스포츠를 통해 아시아 대학 간 우호 증진에 힘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출처=영남대학교

2013 카페베네 U리그 하반기 결산

춘추전국시대 도래 영남대, 사상 첫 U리그 챔피언십 우승 포효

2013 카페베네 U리그 하반기

중부 1권역 '상지대'의 무서운 질주, '중앙대'와 '고려대' 앞치락뒤치락

중부 1권역은 수도권 지역 강팀들이 속하는 중부 권역 중에 서도 유독 강팀들이 많이 속해 있는 권역이었다. 권역 우승을 차지한 팀은 14승 1무 3패로 승점 43점을 획득한 상지대. 상지대는 광운대와 고려대에 각각 2패, 1패만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중부 1권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광운대(승점 41점)와 용인대(승점 37점)는 전·후반기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챔피언십에 직행했다. 단 한 장 남은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놓고 U리그 마지막 라운드까지 중앙대와 고려대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됐다. 고려대 홈에서 펼쳐진 고려대와 중앙대의 2차전에서 에이스 이재성의 활약으로 고려대

가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으나, 중앙대가 남은 2경기를 모두 다 득점으로 승리하며 승점 1점 차로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얻었다.

챔피언십 진출팀	상지대	광운대	용인대	중앙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고려대			

중부 2권역 최후의 승자는 '동국대'

중부 2권역은 연세대와 동국대 그리고 단국대의 3파전이었다. U리그 하반기 첫 경기였던 14라운드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연세대의 권역 우승이 점쳐지는 듯했다. 하지만 연세대가 송호대와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무승부 2개를 추가하면서 권역 우승은 마지막 경기까지 가셔야 판가름났다. 막판 스퍼트를 올린 동국은 12승 2무 2패(승점 38점)의 성적으로 연세대를 승점 1점 따돌리며 권역 우승을 거머쥐었다. 권역 우승은 동국

대가 차지했지만, 득점왕은 이번 시즌 U리그에서 물오른 득점력과 기량을 펼친 연세대 송수영이 차지했다. 송수영은 15경기 15골로 경기당 평균 1골씩 득점에 성공하며 2013년 카페베네 U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단국대가 선두경쟁대열에 합류했지만, 연세대, 송호대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아쉽게 3위를 차지했다.

챔피언십 진출팀	동국대	연세대	단국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경희대		

중부 3권역 막강한 중위권 팀들, 그 속에서 여유롭게 1위를 지켜낸 '건국대'

건국대는 13승 3무 2패(승점 42점)로 여유 있게 중부 3권역 우승을 거머쥐었다. 일찌감치 우승이 점쳐진 건국대는 송실대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주전선수가 아닌 선수들로 선발명단을 꾸렸다. 덕분에 송실대는 마지막 경기에서 2-1로 승리, 승점을 추가하여 관동대를 1점 차로 누르고 중부 3권역 2위에 안착했다. 관동대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시즌 주장 길영태를 비롯하여 서보민, 한의권 등 기량 좋은 주축 멤버들을 꾸려 수도권 팀에도 뒤지지 않는 경기력을 자랑했다. 경기대와 인천대는 마지막까지 각축전을 벌였지만 단 2점 차로 경기대가 4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십에 직행했다.

챔피언십 진출팀	건국대	송실대	관동대	경기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인천대			

중부 4권역 '아주대'의 16경기 무패 우승, '한양대'와 '성균관대'의 막판 스퍼트

아주대는 12승 4무(승점 40점)의 무패 기록으로 당당히 중부 4권역 1위를 차지했다. 아주대는 주장 권수현과 조주영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좋은 공격자원들을 앞세워 공격적이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동시에 선보였다. 2위의 홍익대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뽐냈다. 아주대와 성균관대에 한 차례씩 단 2패만을 기록하며 승점 36점을 가져갔다. 한편, 한양대와 성균관대는 챔피언십 직행티켓을 놓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놓칠 수 없었다. 특히 성균관대는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3-0 대승을 거뒀으나, 한양대가 간발의 차로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4위를 기록한 성균관대와 5위의 청주대의 승점 차이는 11점. 다소 큰 격차를 두고 중위권의 순위가 갈렸지만, 중부 3권역의 득점왕은 청주대의 1학년 공격수 김희원이 차지했다.

챔피언십 진출팀	아주대	홍익대	한양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성균관대		

호남 1권역 애석한 골 득실차 '남부대'

호남대와 남부대가 똑같이 13승 3패(승점 42점)를 기록했지만, 골 득실차로 호남대가 호남 1권역 1위를 차지했다. 호남대의 에이스인 장세영은 총 18경기 12골로 호남 1권역의 득점왕을 차지했다. 한편, 남부대는 창단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팀답지 않은 강한 조직력을 자랑했다. 남부대는 U리그 하반기에 펼쳐진 6경기에 모두 승리하며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다. 3위에 오른 전주대의 성적도 눈여겨볼 만하다. 12승 3승 3패(승점 39점)의 성적을 거둔 전주대는 저학년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예원예술대도 10승 5무 3패(승점 35점)로 선전하며 한 장 남은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획득했다.

챔피언십 진출팀	호남대	남부대	전주대	예원예술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초당대			

호남 2권역 '광주대'의 승승장구

광주대가 18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호남 2권역 1위의 영광을 안았다. 광주대는 이번 시즌 우수한 기량을 갖춘 주전멤버들을 꾸려서 제49회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과 함께 시즌을 시작하더니 결국 권역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그만큼 이번 시즌 광주대는 막강했다. 무적 광주대와의 1차전에서 1패를 허용한 조선대는 광주대와 승점 1점 차로 2위에 올랐다. 조선대는 시즌 초반부터 광주대를 맹렬히 추격했으나 끝내 광주대의 뛰어넘지 못했다. 중위권에서는 동신대, 호원대, 우석대가 겨뤘다. 우석대는 강팀과 맞붙을 때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다.

챔피언십 진출팀	광주대	조선대	동신대	호원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우석대			



영남 1권역 무패기록 브레이커 '영남대'와 '동아대', 골 득실차에 희비 엇갈린 '한남대'와 '대구대'

영남대가 13승 2무 1패(승점 41점)로 영남 1권역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남대에 1패를 안겨준 주인공은 동아대. 동아대는 시즌 초반 불거져 나온 해체설을 훌륭한 실력으로 잠재웠다. 이번 시즌 15경기 17골로 권역 전체 득점왕을 차지한 이주용의 결승골로 영남대와의 1차전에서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아대의 무패기록도 영남대와의 2차전에서 깨졌다. 영남대는 5골을 몰아넣으며 동아대에 설욕했다. 뒤이어 한남대와 대구대가 나란히 승점 33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골 득실차로 한남대가 3위에 안착하면서 대구대는 챔피언십 직행 대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다.

챔피언십 진출팀	영남대	동아대	한남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대구대		

영남 2권역 '동의대'의 단독질주, 하반기에 꽃을 피운 '인제대'

동의대가 14승 2무(승점 44점)로 무패를 기록하며 영남 2권역 선두에 올랐다. 동의대는 2위인 울산대와 승점 7점 차를 내며 무난히 1위를 차지했다. 동의대는 총 16경기 45골을 기록하며 매 경기 다 득점 승리했다. 울산대는 U리그 하반기 첫 경기였던 배재대와의 경기에서 1-2로 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됐다. 그리고 인제대와 배재대가 승점 1점 차로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배재대는 유독 하반기에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고전하면서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반면, 인제대는 하반기에 치른 4경기 중 울산대와의 경기에서만 무승부를 기록하고 남은 경기는 모두 승리하며 거침없이 치고 올라왔다. 영남 2권역 7위를 차지한 대구예술대의 대표 공격수 김태일은 총 16경기 15득점으로 중·상위권 팀의 선수들을 누르고 영남 2권역의 득점왕을 차지했다.

챔피언십 진출팀	동의대	울산대	인제대
플레이오프 진출팀	배재대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플레이오프

2013년 11월 5일, 강원도 동해에서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플레이오프' 4경기가 펼쳐졌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네 팀은 조 추첨결과대로 챔피언십 조별리그에 승선하는 방식이었다. U리그 권역 별로 한 팀씩 간발의 차로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놓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기 때문에 여덟 팀 모두 승리를 위한 엄청난 투지를 보여줬다. 매 경기 치열한 접전

끝에 성균관대, 조당대, 배재대, 경희대가 챔피언십에 오르게 됐다.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강팀들의 대거 탈락, 플레이오프 팀들의 활약! 조별리그 32강

2013년 11월 5일, 7일 이틀 간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조별리그 32강전이 펼쳐졌다. 총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로 팀당 두 경기씩 진행한 뒤 16강 진출 팀을 가려냈다. 이 과정에서 한양대, 용인대, 광운대, 연세대 등의 강팀들이 대거 탈락했다. 한편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온 성균관대, 인제대, 경희대는 조별리그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16강에 진출했다.

32강전 조 편성

1조	동의대 예원예술대 동아대 한양대	5조	아주대 경기대 남부대 단국대
2조	상지대 성균관대 조선대 관동대	6조	광주대 배재대 광운대 인제대
3조	호남대 호원대 송실대 용인대	7조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한남대
4조	영남대 초당대 홍익대 전주대	8조	동국대 경희대 울산대 동신대

1조에서는 부산의 라이벌 두 팀, 동의대와 동아대가 16강에 진출했다. 꾸준히 성적을 거두며 대학축구의 막강 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한양대는 이 두 팀과의 경기에서 2패를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32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2조에서는 성균관대와 조선대가 16강에 올랐다. 2조는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접전이였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성균관대가 상지대에 4-1 대승을 거뒀지만 2차전에서 관동대에 2-3으로 패했다. 또 조선대는 관동대에 1-0으로 승리했지만 상지대와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하고 말았다. 네 팀 모두 1승 1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골 득실차로 관동대와 상지대가 쓰라린 탈락을 맞보고 말았다.

3조에서는 호남대와 송실대가, 4조에서는 영남대와 홍익대가 그리고 5조에서는 아주대와 단국대가 16강에 올랐다. 여섯 팀 모두 조별 리그 두 경기에 모두 승리하면서 16강을 향한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6조에서는 광주대와 인제대가 16강 대열에 합류했다. 6조에서의 이번은 강팀 광운대의 탈락이었다. 광운대는 조별리그 인제대와 광주대에 각각 1-2, 0-2의 스코어로 패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챔피언십 조별 편성 직후부터 '죽음의 조'라고 불리었던 7조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건국대와 한남대가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전년도 우승팀인 연세대가 16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8조에서는 동국대와 경희대가 가까스로 16강에 올랐다. 동국대는 경희대에 1-0으로 승리했으나, 동신대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어렵게 승리했다. 한편 울산

대와 경희대가 1승 1패를 기록하고 골 득실차까지 같은 상황에서 승자승 원칙에 따라 경희대가 웃음 짓게 됐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 16강전

2013년 11월 11일, 32강전 이후 이뤄진 대진 추첨에 따라 챔피언십 16강전이 펼쳐졌다. 홍익대와 울산대, 호남대와 경희대, 동국대와 동아대의 세 경기는 승부차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8강 진출 팀은 홍익대, 호남대 그리고 동아대. 조금 의외의 결과를 뽑자면 동국대가 동아대에 패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동아대 이주용의 선제골 이후에 동국대 임진욱이 동점 골을 성공했으나 동국대가 PK 스코어 3-4로 패하면서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올라온 두 팀, 성균관대와 인제대의 16강전에서는 성균관대가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다. 동의대와 한남대의 경기에서는 동의대 박성환이 소중한 1골을 득점하며 8강에 올랐다. 단국대와 조선대의 경기는 3-1, 단국대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호주가 멀티 골을 몰아넣으면서 이날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광주대와 영남대, 건국대와 숭실대 이 두 경기는 16강전의 빅매치로 손꼽혔다. 먼저 각각 호남권역과 영남권역의 강호인 광주대와 영남대의 16강전에서는 영남대가 8강에 진출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영남대가 1-0으로 값진 승리를 거뒀다. 한편 U리그 중부 4권역에서 맞붙었던 건국대와 숭실대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건국대가 U리그 두 경기 모두 승리했지만, 챔피언십 16강전에서는 숭실대가 승리했다. 숭실대 역시 1-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후보였던 건국대가 16강전에서 일찍이 패배를 맛보게 됐다.

수도권 팀들 탈락의 고배를 마시다! 8강, 4강

8강전은 2013년 11월 13일에 펼쳐졌다. 홍익대와 성균관대의 8강전에서는 홍익대가 1-0으로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했다. 같은 시간 펼쳐진 단국대와 영남대의 경기에서는 영남대가 단국대를 3-0으로 제압했다. 호남대는 정민우의 활약으로 동의대와의 8강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한편, 동아대는 8강전에서도 큰일을 냈다. 제44회 전국주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하면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던 우승 후보 숭실대에 2-0으로 승리했다.

2013년 11월 15일, 준결승전날 펼쳐진 첫 번째 경기는 홍익대와 호남대의 경기였다. 준결승전다운 드라마틱한 명승부였다. 후반 10분, 호남대의 정민우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홍익대는 집중력을 놓지 않고 고군분투한 끝에 후반 막바지 추가시간이 3분 주어진 상황에서 호남대 골키퍼 박지환의 편칭으로 떨어진 세컨볼을 김학찬이 슈팅골로 성공했다. 극적인 버저비터



사진출처=영남대학교

동점골이었다. 홍익대는 이 기세를 몰아 연장전에서도 공격을 퍼부어봤지만 양 팀 모두 추가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됐다. 승부차기에서 호남대의 세 번째 키퍼였던 조상범의 PK를 홍익대 골키퍼 이영창이 선방하면서 홍익대는 접전 끝에 결승에 진출하게 됐다.

이어진 준결승 경기는 영남대와 동아대의 매치. U리그 영남 1권역에서 선두를 놓고 다투던 두 팀은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결승 진출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경기 결과는 영남대의 3-1 압승이었다. 조별리그 32강전부터 거침없이 승리를 만끽하며 올라온 동아대는 4강에서 아쉽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영남대, U리그 출범 이후 최초의 비수도권 우승 쾌거!

홍익대와 영남대의 결승전은 2013년 11월 2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홍익대가 홈구장이 없어서 영남대의 홈에서 결승전이 치러지게 됐다. 영남대는 특유의 세밀한 패스플레이로 볼 점유율을 높여갔다. 전반 21분, 정대교의 패스를 이어받은 류재문이 때린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홍익대의 골망을 흔들면서 영남대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실점 이후 홍익대는 곧바로 추격을 위해 공격에 집중해봤지만 찬스를 살려내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 37분, 혼전상황에서 정대교가 오른발 슈팅골로 추가득점에 성공하면서 영남대는 홍익대를 2-0으로 누르고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영남대는 U리그 출범 이후 최초의 비수도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점점 수도권과 비수도권 팀들의 실력차이가 미미해지면서 ‘수도권 팀들이 강하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보미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하반기 결산

‘3인방’ 가고 ‘트윈타워’ 온다! ‘고려천하’의 도래

대학농구의 새 시대가
열렸다.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의 챔피언
트로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중앙천하”가
“경희천하”로 바뀐
지도 어언 3년. 이제는
“고려천하”다.

‘3인방’ 떠난 자리에 ‘막강 트윈타워’ 경희천하? 고려천하

‘경희대 3인방’의 마지막 뒷모습은 쓸쓸했다. 늘 함께했던 우승 트로피가 부재한 까닭이었다. 상반기 정규리그에선 1위에 빛났던 경희대. 하지만 당시 고려대와의 최종전에는 이종현이 없었다. 5월 있었던 동국대와의 크로스 매치에서 얻은 안와골절 때문이었다. 덕분에 경희대는 6월 27일 있었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이빨 빠진 고려대를 어렵지 않게 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왕 중의 왕’을 가려내는 챔피언결정전에서 경희대는 굳건히 지켜오던 왕좌를 결국 고려대에 내주고야 말았다. 대학농구리그의 진정한 왕을 가려내는 자리였던 만큼 양교의 공방은 치열했다. 1차전에서 경희대 3인방이 득점을 휘몰아쳤다면 2차전에서는 심기일전한 고려대가 경희대 3인방의 공격 루트를 틀어막으며 승기를 잡았다. 2차전까지 물고 물리며 오리무중이던 챔피언타이틀의 행로는 3차전에 가서야 분명해졌다. 경희대는 김종규 등의 부상이, 고려대는 6강부터 소진된 체력이 발목을 잡는 위기가 닥쳤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던 두 팀이었지만 그러한 위기들이 무색한 명승부가 3차전에 펼쳐졌다.



◀◀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 리그에서 우승한 고려대.

초반에는 경희대의 기세가 무서웠다. 전반에만 고려대를 20점 가까이 따돌렸던 경희대였다. 2차전에서 가벼운 부상을 당한 김종규는 우띠롱과 출전시간을 나눴다. 우띠롱은 득점력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신장을 앞세워 골밑에서 고려대의 득점을 봉쇄했다. 2차전과는 달리 배수용, 김영현으로 분산된 공격루트에 고려대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 이민형 감독의 '믿음의 농구'가 힘을 냈다. 전반전 내내 숏 감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문성곤이었지만, 이민형 감독은 문성곤을 계속해서 코트 위에 머무르게 하며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현 역시 우띠롱에 가로막혀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승현과 함께 골밑을 지키며 고려대를 승리로 이끌었다. 결국, 이종현-이승현의 막강한 트윈타워와 문성곤, 박재현, 이동엽 등 출전 선수 모두 골고루 득점에 가담한 고려대가 74:71로 경희대 '3인방'의 위세를 꺾고 대학리그 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연세-한양,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도 먼 '챔피언결정전'

고려대가 우승 트로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고려대의 앞을 가로막은 팀이 경희대만은 아니었다. 대학농구리그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연세대에 상대 승률에서 뒤진 고려대. 이 때문에 정규시즌 3위로 내려앉아 가을농구를 6강부터 뛴아 나가야 했다. 비록 상대 전적에서나 전체 전력에서나 모두 우위인 상명대와의 6강전이었지만 단기 레이스인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를 더 치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고려대는 플레이오프 직전 있었던 제2회 프로-아마 최강전 우승팀. 보름여에 걸친 짧은 대회였던 만큼 막바지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됐다. 경희대 역시 같은 대회에

참가했지만 4강에서 탈락하면서 체력을 조금이나마 비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력적 열세에 처한 경희대와 고려대의 진짜 적수는 따로 있었다. 각각 4강에서 마주친 한양대와 연세대.

한양대는 정규리그부터 경희-고려-연세로 이어지는 BIG3의 3파전을 깰 가장 유력한 팀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정규리그에서는 세 학교 중 어느 팀에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BIG 3에 이를 갈고 임한 플레이오프 6강전. 한양대는 한호빈이 진두지휘하는 건국대를 한 번의 연장접전을 포함해 2회전 만에 꺾고 4강에 이르렀다. 패색이 짙었던 6강 1차전에서의 위기를 딛고 4강에 오른 만큼 한양대의 투지는 대단했다. 경희대와 한양대 모두 육상농구에 능한 팀이다. 그러나 스피드에서나, 신장에서나 경희대가 우위. 때문에 가을농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희대는 일찍이 챔프전 직행 티켓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양대로선 자존심이 상했을 법도 했다. 조용히 이를 갈던 한양대는 결국 4강전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이재도의 리딩을 앞세워 정효근과 임형종이 포스트를 받치고 오창환과 유용진이 외곽을 맡았다. 특히 오창환의 경우, 팀의 주장이기도 한 만큼 내외곽을 오가며 수비에도 열을 올렸다. 1차전은 77-73으로 경희대의 신승. 아쉽게 패배했지만, 경희대 뿐 아니라 4강에 오른 모든 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경기력이었다. 이어진 2차전에서도 한양대는 거침없었다. 한상혁과 한준영 등 정규시즌 Best 5 외의 선수들까지 유기적으로 가동하며 경희대를 압박했던 것. 득점이 김민구-두경민-김종규의 3인방에 편중된 경희대는 한양대의 조직력 앞에서 위기를 맞았다. 이재도의 빛나는 경기운영으로 경희대에 파울을 내어주기도 2점 차 턱밑까지 추격한 한양대였지만 막판 정효근의 실책이 뼈아팠다. 이재도의 허를 찌르는 패스를 정효근

이 홀린 것. 챔피언을 방불케 했던 명승부였지만 결국 한양대는 70-68로 또 한 번 챔피언 티켓을 코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연세대 역시 아쉬움으로 말하자면 한양대 못지않다.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며 4강에 직행했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숙명의 라이벌'인 고려대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정규시즌 전적은 연세대가 앞섰다. 그러나 8월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모든 프로팀과 상무를 꺾고 고려대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났다. 당시 고려대 주장이었던 박재현 역시 "팀내) 분위기가 최고조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했을 정도. 성인대표팀에서 문성곤과 이종현이 얻어온 수확과 프로-아마 최강전 우승. 고려대는 정규시즌 당시보다 더 큰 산이 되어 연세대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숙명의 라이벌인 고려대에게 쉽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노릇. 1차전에서 판정시비에 휘말린 끝에 고려대에게 승리를 내어줬던 연세대였지만 2차전에서는 지난 패배를 잊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김기윤이 팀을 호령하고 몸싸움이 능한 김준일이 이종현과 이승현의 발을 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급신인' 최준용의 활약이 빛난 덕에 연세대는 판정시비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1차전의 패배를 설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대망의 3차전에서 승리의 여신은 고려대를 향해 미소 지었다. 허웅이 홀로 3점 슛 6개를 포함해 36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팽팽하던 저울은 허웅이 부상을 당해 코트에서 물러서면서 고려대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연세대는 또 한 번 문턱 앞에서 라이벌이 챔피언결정전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신입생 특수

물고 물리는 순위권 싸움이나 이재도-한호빈의 가드 대결, 수면 위로 떠오른 고려대 등 이야깃거리가 많았던 2013 시즌. 그중에서도 '신입생 특수'는 2013 대학농구리그를 정의할 한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대의 이종현과 연세대 최준용이 대표적이지만 그밖에도 단국대 하도현이나 고려대 강상재, 연세대 천기범, 박인태 등 고학년 선배들을 압도할 '쟁쟁한' 신인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특히 경북고 동창이기도 한 이종현과 최준용은 FIBA 아시아선수권 대회의 성인 대표팀에도 깜짝 발탁되면서 농구 붐에 크게 일조했다. 2회 프로-아마 최강전으로 아마추어 무대를 넘어 프로 무대에도 그 진가를 보여준 덕에 농구팬들에게 아마농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종현은 대학리그 신인상에 이어 챔피언결정전 MVP까지 차지하며 '차세대 국보급 센터'의 등장을 화려하게 알리기도 했다.

이종현과 최준용 그 개인들에게도 의미가 컸던 한 해였지만, 이들이 속한 학교가 계속해서 상위권에서 물고 물리는 접전을 이어나가면서 대학농구에 재미를 더한 것도 주목할 만하

다. 물론 두 학교는 모두 전통의 강호다. 하지만 지난 3년간 '3인방'이 버티고 있는 경희대의 왕좌가 워낙에 굳건했다. 자칫한 팀이 승리를 독식하면서 퇴색될 수 있었던 재미를 살린 것은 이들 '특급 신인'이 속한 두 학교였다. 굳건하던 왕좌에 고려대와 연세대, 두 학교가 가세해 대학농구 순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흥미로운 경기가 이어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각 학교의 주전으로 자리 잡아 성인 대표팀으로 활약하며 한국농구의 밝은 미래를 예고한 2013 대학농구리그 신인들. '자이언트 베이비'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다.

다가오는 2014시즌에도 쟁쟁한 신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2014시즌에는 중앙대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천하'를 이끌어 나갔던 09학번 이후 그렇다 할 특급 선수 없이도 꾸준히 상위권에 속했던 중앙대였지만, 2013년의 중앙대는 과거의 명성이 다소 퇴색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중앙대는 올해 무려 11명의 14학번 선수를 선발했다. 그중에서도 기대가 되는 선수는 이우정(184cm, G)과 김국찬(193cm, F), 김우재(200cm, C)다. 전주고 출신의 이우정은 패싱 능력이 뛰어나고 농구 센스가 좋다는 평을 듣는다. 타고난 센스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김국찬은 슛과 드라이브인에 강점이 있다.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슛을 쏘아 올리는 능력이 있어 전성현(안양KGC/F)의 득점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재는 힘이 좋아 몸싸움에 능하다.

이들 중앙대 새내기 외에도 주목할 신인들이 많다. 경희대는 이민영(181cm, G)과 윤영빈(193cm, F)을, 고려대는 박재현 공백을 메워줄 최성원(187cm, G)과 김낙현(184cm, G)을 영입했다. 아직 프로로 떠난 4학년생들의 아성에 건줄 수준은 되지 않지만 기대가 큰 선수들이라고. 연세대는 경북고 출신의 안영준(195cm, F)을 영입했다. 고교무대에서 랭킹 1위로 지목되던 안영준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김천에서 열렸던 농구 대잔치에서도 진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2013시즌 5위를 차지했던 건국대는 경북고 출신의 고행석(186cm, F)을, 6위 상명대는 슛과 드라이브인에 강점이 있는 김세진(180cm, G)을 영입했다. 한편, 지난 시즌을 무승으로 마감했던 성균관대는 198cm의 센터 최우연의 영입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게 했다. 다가올 시즌, 2013시즌과 같이 '신입생 특수'로 웃는 팀은 어느 팀일지 경기장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하다.

신바람 난 대학농구

바야흐로 대학농구에 신바람이 붙었다. 지난해부터 미디어 채널과의 연계로 흥행에 초석을 다진 노력에 대학생선수들의 성인대표팀 발탁과 대학리그의 순위경쟁, 프로-아마 최강전에서의 대학팀 우승 등 흥행의 씨앗이 뿌려졌다. 특히 프로농구 팬들에게는 비수기에 해당했던 여름에 프로-아마 최강전이라



경희대 김종규



연세대 김준일

는 대회로 팬들에게 다가갔던 것은 의미가 크다. 다가올 시즌의 전초전과 아마추어 유망주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희천하’를 이끌던 김민구(전주KCC/G)-두경민(원주동부/G)-김종규(창원LG/F)의 ‘경희대 3인방’ 역시 높아진 대학농구의 수준을 프로무대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벤트성 대회가 아닌 대학농구리그 정규시즌이 대중 및 재학생들에게 그 매력을 십분 발산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대학 학생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만큼 재학생들을 상대로 펼치는 마케팅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규격화된 홍보 매뉴얼의 부재와 학교별로 다른 지원 규모 때문에 마케팅의 방식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성적이 좋아도 관중석이 썰렁한 경우가 왕왕 생기는가 하면, 대학농구 올스타전은 무료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소수의 관중만이 자리를 메웠

다. 하반기에 경기가 없는 중위권 및 하위권 팀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구대잔치나 전국체전 등 단기 레이스로 펼쳐지는 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단발성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 중·하위권 팀들은 공백이 다소 길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출범한 지 몇 해 되지 않는 대학농구리그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한 시행착오다. 이번 시즌, 단국대와 상명대는 학교 차원에서 리그 흥행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려 재학생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연세대도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농구기획팀을 만들어 흥행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러한 노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해가 더할수록 볼거리와 재미가 더해지는 대학농구의 매력이 코트 밖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해은



2013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하반기 결산

‘송브라더스 날다’ 경기대, 전국대학배구리그 3연속 왕중왕

예선리그, 막판 순위 싸움의 최종 승자는?

2013년 7월 5일.
2013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리그
예선리그, 4개월간의
일정이 끝났다. 이번
리그는 절대 강자
‘경기대’를 비롯한 총
11개 대학이 참가하였다.
이 중 6개 대학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예선리그 마지막 날까지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 홍익대와 인하대는 2위 자리를 놓고, 명지대와 경남과기대는 6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 1, 2위는 바로 준결승전에 직행하고 3~6위는 준준결승전을 치러야 한다.

체력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2위 자리는 홍익대와 인하대가 모두 놓칠 수 없는 자리인 것. 홍익대는 조선대와 마지막 경기를, 인하대는 충남대와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조선대와 충남대 모두 일찌감치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하였다. 승점 1점 차이로 홍익대에 앞서있던 인하대는 순조롭게 준결승전에 직행하는 듯했다. 하지만 대이변이 일어났다. 충남대가 인하대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충남대와 인하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25-20, 25-23, 25-23) 완승을 했다. 충남대의 조민수는 23점(공격성공률 70%)으로 경기 최다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위로 직행티켓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홍익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홍익대는 조선대를 세트스코어 3대0(25-22, 25-12, 25-20)으로 손쉽게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직행했다.

챔피언결정전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은 명지대였다. 7월 5일 성균관대와와의 경기에서 명지대는 세트스코어 0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반전을 꺾으며 세트스코어 3대2(27-29, 16-25, 28-26, 25-16, 15-13)로 승리하였다. 승점 3점을 따낸 명지대는 승점 15점으로 6위에 올라있던 경남과기대와 승점 15점으로 동률을 이루었다. 세트 득실에서 경남과기대에 앞서 명지대가 챔피언결정전의 마지막 티켓을 갖게 되었다. 일찌감치 예선리그를 마치고 명지대의 패배만을 기다리던 경남과기대는 내년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성균관대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실책을 거듭하며 리그 마지막 경기를 명지대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 한양대(승점 18점)와 4위 싸움을 벌이던 성균관대는 명지대에 패하며 승점 17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경기대는 마지막 경기인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한양대를 세트스코어 3대0(25-21, 25-21, 25-21)으로 완파하며 1위를 확정 지었다. 이전 경기인 홍익대와의 경기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인해 이민규, 송명근, 송희채 등의 빈자리를 실감하였지만, 이번 경기는 달랐다. 1세트 초반, 이민규의 동생 이민욱의 활약에 힘입어 게임을 이끌어 나갔다. 정바다와 안우재는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며 주전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한양대 김재훈이 16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한양대는 경기대에 패하며 4위를 기록하였다.

예선리그, 부문별 선수 순위 알아보기

카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월드컵으로 인해 차출된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2부 대학에서 이번 시즌 승격된 충남대, 경남과기대, 중부대의 활약이 돋보였다. 득점, 서브, 세트, 리시브 그리고 디그 부문에서 2부 대학에서 승격된 학교의 선수들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득점 부문에서는 1위에서 4위까지 모두 세 학교의 선수들이 차지했다.

1. 득점

순위	이름	학교명	경기수	세트수	공격	블로킹	서브	득점
1	지원우	중부대	10	41	266	14	9	289
2	용동국	경남과기대	10	36	231	11	3	245
3	정영호	경남과기대	10	36	200	12	9	221
4	조민수	충남대	10	41	180	16	16	212

이번 시즌 8위에 그친 중부대의 지원우는 블로킹 14점, 서브 9점을 포함한 총 289득점을 성공하며 득점 부문 1위를 했다. 제94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경남과기대의 용동국과 정영호는 각각 245점과 221점을 기록하여 나란히 2, 3위를 기록했다. 16득점으로 서브 1위를 기록한 충남대의 조민수는 21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2. 리시브

순위	이름	학교명	경기수	세트수	성공	실패	연결	세트당개수
1	정민수	경남과기대	10	36	241	8	102	6.472
2	유도운	조선대	10	34	221	14	109	6.088
3	신희섭	충남대	10	41	208	7	130	4.902
4	최돈선	경남과기대	10	36	173	6	126	4.639

경남과기대는 공, 수 모두 빠지지 않고 상위권을 차지한 선수들을 배출하였다. 세트당 6.472개를 성공한 정민수는 1위를, 총 173개를 성공한 최돈선은 4위를 기록했다.





3. 디그

순위	이름	학교명	경기수	세트수	성공	실패	세트당개수
1	정민수	경남과기대	10	36	128	28	3,556
2	오재성	성균관대	7	24	76	7	3,167
3	정성현	홍익대	9	39	122	23	3,128
4	황영권	경희대	10	39	121	18	3,103

우리카드에 지명되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리베로 정민수는 리시브에 이어 디그에서도 1위를 하였다. 리베로 중 유일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성균관대의 오재성은 세트당 3.167개를 성공하며 2위를 기록하였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러시안캐시로 지명된 정성현은 3위에, 경희대의 황영권은 4위를 차지했다.

최강자를 가리다 챔피언결정전

1위 경기대, 2위 홍익대, 3위 인하대, 4위 한양대, 5위 성균관대 그리고 6위 명지대

4개월간의 일정 끝에 예선리그의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1위부터 6위까지의 학교가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승부에서 최강자를 가리게 된다.

6강전 한양대 vs 명지대, 인하대 vs 성균관대

4위 한양대와 6위 명지대가 6강전에서 맞붙게 되었다. 승리의 주인공은 ‘푸른 사자’ 한양대였다. 지난 추계대회에서 명지대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손쉽게 제압했던 한양대는 세트스코어 3대1(22-25, 25-17, 25-17, 25-20)로 승리하며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1세트를 내주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한양대에 자극제가 되었다. 4학년 김명진과 김재훈이 각각 23점과 14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센터 안정경도 13점을 득점(블로킹 6득점)하며 높이에 힘을 실어주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였던가. 추계대회 결승전에서 만났던 인하대와 성균관대가 다시 한 번 맞붙게 되었다. 국가대표 에이스 전광인의 합류로 성균관대가 이길 것이라는 예상은 빗겨나갔다.



인하대는 21득점을 뽑아낸 손현종을 필두로 차세대 거포로 불리는 1학년 나경복(18득점), 추계대회 공격상을 받은 황두연(19득점)이 고루 득점을 하며 성균관대를 세트스코어 3대2(25-22, 20-25, 25-18, 19-25, 16-14)로 제압하였다.

준결승전 경기대 vs 한양대, 인하대 vs 홍익대

대학배구의 '절대 강호' 경기대는 한양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25-18, 25-20, 25-21), 압승을 거뒀다. 경기대의 벽이 너무 높았던 것일까. 한양대의 김명진과 김재훈은 합하여 11점밖에 올리지 못하며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반면, 러시앤캐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송명근과 송희채는 16점씩을 기록하며 승리의 건인차 역할을 했다.

최근 대학배구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학교가 만났다. 인하대와 홍익대는 명성에 맞게 명경기를 펼쳤다. 구본탁, 김준영 그리고 김재권이 각각 31점, 23점, 19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하였지만, 승리의 여신은 인하대를 향하여 웃어주었다. 세트스코어 3대2(20-25, 25-22, 25-22, 21-25, 17-15)로 인하대의 승리. 손현종(22점)과 나경복(18점)을 앞세운 인하대는 추계대회에 이어 또다시 결승전에 진출하는 기쁨을 토했다.

3. 결승전 경기대 vs 인하대

세트스코어 3대2(25-15, 25-19, 13-25, 22-25, 15-13).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최후의 승자는 경기대였다. 이민규-송명근-송희채를 앞세운 경기대는 또다시 최강자의 자리에 오르며 절대 강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하대는 추계대회부터 쉴 틈 없이 이어져 온 강행군으로 인한 피로 때문인지,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너무나도 쉽게 1, 2세트를 내주고만 인하는 3세트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4세트까지 따냈다. 하지만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인하는 송명근, 송희채에게 포인트를 연이어 내주며 아쉽게도 또 우승의 영광을 놓쳤다.

송명근은 무려 29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압도하였다. 송희채도 15점을 올리며 승리에 한몫을 하였다. 인하대의 두 거포 손현종과 나경복이 각각 19점, 15점을 기록하였지만, '송브라더스'를 넘어서진 못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민영 / 사진. 발리볼코리아닷컴





2013년도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

2013년 12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울에서 ‘2013년도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이 열렸다.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은 KUSF의 52개 회원대학 및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참가 대학의 감독, 코치 등 경기지도자와 체육위원(부·실)장, 체육부 행정담당자가 참석해 대학스포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에 관한 토론회로 열렸다. KUSF는 지난 2012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에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를 소개한 바 있으며, 규정 최종(안) 수립에 앞서 대학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워크숍의 주제로 채택했다.

먼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를 맡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진이 총 7개 절, 8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규정(안)을 소개했다.

이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한 장재욱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총칙, 아마추어리즘 규정(안)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목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김용섭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경기지도자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 조항을 개발한 담당연구원이 각 조항과 조항 해석을 발표한 데 이어 발제자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 토론이 이어졌다.

경희대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학생선수 선발 시 일정 부분 감독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학생선수 선발 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이 축소된 것 같다.”라며 감독의 재량 축소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 규정(안)을 연구한 이재목 교수는 “학생선수 선발 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위해 주로 감독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선발하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규정(안)에서 시험위원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각 대학 운동부 감독은 내부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학축구연맹 변석화 회장은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심사위원이 학생선수를 보는 눈은 다르

다고 본다.”며 “학생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정성에 치우쳐 자칫 좋은 선수 양성의 기회를 놓칠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목 교수는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학생선수 선발에 대한 논란은 이 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정 감독이 특정 선수를 위해 자의적인 판단을 관철시키는 부분은 없애지는 것.”이라며 의견을 정리했다.

제1부에 이어 제2부에서는 손석정 교수(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가 경기 운영 규정(안)을 발표했고, 유주선 교수(강남대 법학과)가 재정 및 마케팅 규정(안)을 발표했다. 포상 및 징계 규정(안)은 연구자인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를 대신해 장재옥 교수가 발표했다.

연구진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앙대 체육부 오기택 팀장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과 각 대학 체육부 자체 규정이 상충될 시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장재옥 교수는 이 규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 회원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스포츠 현실을 반영해 각 조항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농구연맹 임우택 전무는 “규정(안) 조항을 살펴보면 대학스포츠의 마케팅 권리가 KUSF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KUSF와 각 대학, 연맹의 마케팅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질문했다. 재정 및 마케팅 규정(안)을 연구한 유주선 교수는 “대학스포츠의 마케팅 권리는 조직상 상위 기구인 KUSF에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연맹 등의 마케팅 활동 등은 KUSF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토론회의 의장을 맡은 강신욱 집행위원장은 “KUSF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대학운동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규정(안)이 어떤 면에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려스러울 수도 있으나 대학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최종적으로 좋은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세미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2013년 9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국법학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KUSF가 개발 중인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대학스포츠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하여 KUSF 집행위원, 분과위원, 회원대학 체육부 행정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강신욱 KUSF 집행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KUSF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연구가 진행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대학스포츠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초·중·고 학원스포츠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대학스포츠도 스포츠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대학스포츠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제1주제로 총칙과 스포츠 윤리와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발제자로 장재욱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매이 교수(고려대 체육교육과)가 발표한 데 이어 토론자로 임승엽 교수(테네시주립대학교)와 주성택 연구원(경희대 스포츠과학연구소)이 나섰다. 임승엽 교수는 규정(안) 정의 조항에서 학생선수, 예비학생선수, 아마추어리즘 등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조항을 검토함과 동시에 “온정주의 중심의 한국 스포츠 문화를 고려해 더욱 강력한 규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주성택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 적합한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아마추어리즘 관련 규정이 세부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2주제는 학생선발 및 학사관리였다. 이재목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 발표와 김상유 교수(명지대 체육학부)와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유 교수는 “이 규정을 통해 대학 학생선수의 학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전제한 뒤, “이 규정의 많은 부분이 미국 NCAA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NCAA 회원대학은 재정 지원과 홍보 등의 효과가 있기에 강력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이런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정을 제시할 시 운동부의 존속 여부가 위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스포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융통성 있고 현실성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달영 변호사는 “학생선수 선발의 기본원칙으로 공정성과 더불어 투명성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규정(안)에 제시한 예비학생선수의 자격 기준에 대해 “예비학생선수의 자격 기준은 확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선발이 예민한 부분인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제3주제 중 경기운영 부분은 손석정 교수(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가 발표했고, 경기지도자 부분은 김용섭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창국 교수(고려대 사회체육학부)와 장봉군 감독(단국대 농구부)이 참여했다. 경기운영 규정과 관련, 김창국 교수는 “대학스포츠 대회는 협의회가 주최하고 대학연맹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스포츠 대회를 각 종목 협회가 주최할 경우 대학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상업성이나 편이성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도자 규정과 관련해서는 “경기지도자 임기는 최소 4년간 보장해서 한 학생선수의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의 지도·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봉군 감독은 “경기지도자는 대회 출전, 학생선수 관리와 훈련뿐 아니라 취업까지도 신경 쓰는 만큼 경기지도자의 역할에 적합한 처우를 위한 급여 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에 경기지도자 자격을 1급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목소리를 냈다.

제4주제 재정지원 및 마케팅 주제 발표는 유주선 교수(강남대 법학과)가 맡았고, 토론은 최준서 교수(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와 김영진 상무(IB 월드와이드)가 맡았다. 최준서 교수는 “이 규정(안)은 미국 NCAA 규정을 참고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현실이 다른 만큼 마케팅 수익의 사용처, 분배에 대한 세부규정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상무를 대신해 토론자로 나선 박노하 차장(IB 월드와이드)은 “대학스포츠 리그 참여 대학마다 자체 규정이 상이해 대학스포츠 마케팅 진행 시 어려움이 있다.”고 대학스포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공통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 제5주제는 상벌 및 처분이었다. 윤태영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에 이어 권오상 기자(전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와 심상신 교수(단국대 체육교육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권오상 기자는 “상벌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이 필요하며, 상벌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벌위원회 구성 시 학생선수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심상신 교수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해 불복 심사를 통한 재심 등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토론자는 표창은 협의회와 권위와 관련 있는 만큼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제1주제부터 제5주제까지의 토론을 마치고, 강신욱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과 연구자, 참석자 간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5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세미나는 마무리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최종(안) 수립에 앞서 대학스포츠 현장의 시선으로 규정(안)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선수촌 입촌 학생선수 학사지원 사업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릉·진천선수촌 내 강의 개설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그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수한 경기력과 학업능력을 겸비하고 건전한 리더십을 갖춘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를 주축하고, 매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하는 등 대학교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KUSF의 노력은 최근 최저학력제 도입과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및 시행 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선수촌에 입촌하게 되는 학생선수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사회적인 관심의 범주에서 아직도 떨어져 있으며,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학업 및 진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육과학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이 연구 결과 보고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학업 및 진로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태릉·진천 선수촌에는 대학부 학생선수 220명이 입촌해 훈련하고 있으나, 장기간 이어지는 훈련과 지리적인 문제 등으로 소속 대학 수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치는 4년제 대학 학생선수가 선수촌에 입촌했을 경우 수업 불참 비율이 1년 이하가 44.6%로 가장 높았고, 6개월 이하 38.8%, 1년 이상 14%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상 수업 참여가 어려운 선수촌 입촌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의 현실에 맞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선수촌 내 학생선수 학습능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 운영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KUSF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

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릉·진천선수촌 내 강의실에서 대학부 학생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수촌 내 강의를 수강한 학생선수에 한해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선수촌 내 강의 운영의 세부 사항은 KUSF가 선수촌 강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진 선발 등을 담당하게 되며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강의 현장 운영·관리와 학생선수 모집·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선수촌 내 강의 개설 기간은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가 시범적으로 개설·운영되며,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가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강의시간은 오후 운동이 끝난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전공 능력 배양과 은퇴 후 진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 2개 과목, 교양/직무 1개 과목을 개설한다. 그 시작으로 올해 1학기에는 운동생리학, 리더십, 스포츠영어1 과목을 개설하게 되고, 2학기에는 운동영양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영어2 과목을 순차적으로 개설·운영하게 된다.

KUSF와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내 강의 개설을 통해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생선수의 학업 포기 및 중도탈락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전공 및 교양과목 강의의 개설을 통해 학생선수의 은퇴 이후 진로 개척에 도움을 주며, 세계적인 경기력을 보유한 학생선수를 스포츠 외교 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최정점인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공부와 운동 병행’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초·중·고 학원스포츠 문화를 변화시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것자 한다.

2014학년도 1학기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 선수촌 강의 시간표

구분	스포츠영어 I	운동생리학	리더십
태릉선수촌	지인영 (한국체대 교수)	조인호 (한국체대 교수)	윤영길 (한국체대 교수)
	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
진천선수촌	이호진 (한국과학기술대 강사)	정진욱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원)	박종진 (충북대 교수)
	매주 월요일	매주 화요일	매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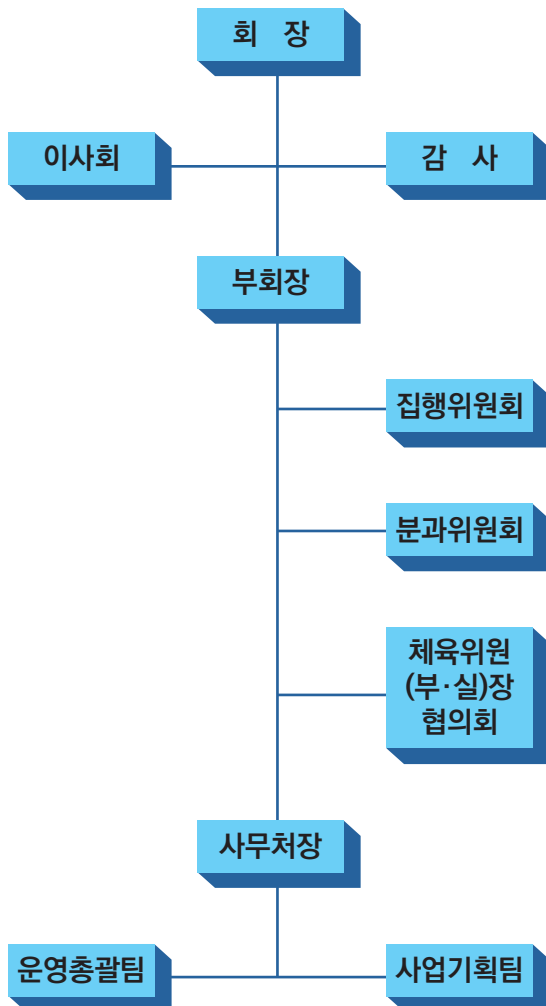
※ 강의기간: 2014. 3. 3(월) ~ 6. 19(목) / 16주

※ 강의시간: 19:00 ~ 22:00(3시간)

KUSF 사무국, 사무처로 격상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사무국이 2014년 2월 6일부로 사무처로 격상되었다. 협의회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열린 2013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승인하며, 제29조 제1항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사무처로 격상했다. 사무처장은 김성태 사무국장이 그 직위를 승계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이끌게 된다.

한편, 협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무처 아래 운영총괄팀과 사업기획팀 2개 부서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협의회 위상과 역량 강화로 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무처 업무 체계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KUSF 신규 집행위원 임명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장호성 회장은 2014년 2월 5일, 단국대학교 총장실에서 신규 집행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임철순 전국 대학교 체육부(과)장 협의회 회장, 전익기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장, 장달영 변호사가 협의회 새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협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정기총회 시 정관 일부 개정(안) 승인을 통해 집행위원 대상자를 체육부 위원(부·실)장, 대학경기연맹회장, 스포츠 전문기자, 스포츠행정 유경험자 15인 이내로 그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신규 집행위원



임철순 회장



장달영 변호사



전익기 교수

KUSF 사무처 이전

KUSF 사무처가 기존 강남구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20층에서 14층으로 업무 공간을 확대 이전했다. 사무처는 서울, 경기도를 아울러 위치한 회원대학과의 높은 접근성을 유지하며, 집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대학생 기자단의 확대 운영에 따라 시급히 필요회의의 공간 확보 등을 고려해 동 건물 14층으로 확대 이전을 결정했다. 사무처 업무 공간이 확대와 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무처 주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135-7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410호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찬 간담회

2013년 9월 24일(화) 12시, 서울 종로구 명륜동 진사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문체부 유진룡 장관과 박위진 체육국장, 박현성 체육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고, KUSF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 유병진 부회장(명지대 총장), 이용구 부회장(중앙대 총장), 임덕호 부회장(한양대 총장), 강신욱 집행위원장, 김성태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오찬 간담회는 KUSF 임원진 환담 및 대학스포츠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오찬에 앞서 KUSF 강신욱 집행위원장이 KUSF의 현황, KUSF의 3년간 사업 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했다. 유진룡 장관은 그간 침체를 겪던 대학스포츠가 KUSF 발족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KUSF의 역할과 성과를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KUSF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KUSF에서 추진 중인 「대학스포츠 운영규

정」이 대학스포츠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각 대학이 운동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학스포츠 발전이 곧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이므로 각 대학에 운동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KUSF 회장단은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KUSF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며, 창립 초기 단계에 있는 KUSF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지원의 당부와 더불어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외의 추가 종목 지원 등을 요청했다.



NCAA 사례 중심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



2013년 12월 27일(금) 11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사무국 회의실에서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 사례를 주제로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KUSF 강신욱 집행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 간담회에는 이윤영(NCAA 인턴 1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 경기국 경기

운영부 스포츠매니저), 최원일(NCAA 인턴 2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마케팅부 회장 2팀 담당관), 임성민(NCAA 인턴 2기) NCAA 인턴 경험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NCAA 챔피언십 경기기획 및 경기운영 노하우, NCAA 마케팅 사례 등 NCAA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NCAA 인턴 경험자들은 NCAA가 100여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KUSF도 국내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이윤영 씨는 “NCAA는 학생선수과 코치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장 리더십 교육, 부상 및 은퇴 선수 진로 교육 등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보냈다.

강신욱 집행위원장은 “NCAA에서 근무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NCAA과의 교류를 추진하며 NCAA 벤치마킹 등 업무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 활동 마무리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가 2013년 7월부터 이어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 12인은 2013년 12월 26일 KUSF 사무국에서 수료식을 갖고, 2013년 7월부터 이어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학생 기자단 제5기 우수 기자로는 대학축구 리그 현장을 찾아 전국을 누빈 김보미 학생기자(단국대 정치외교)와 박수지 학생기자(건국대 국제통상), ‘동기를 만나다’ 등 기획기사를 통해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를 친근하게 소개한 김예슬 학생기자(연세대 스포츠레저)가 선발되었다.

김보미 학생기자는 “내가 쓰는 기사가 대학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하다.”며 “처음 취재를 가서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 사진도 못 찍은 적도 있는데, 이제는 취재를 가면 앞에 나가 사진도 찍는 모습을 보면, 기자단 활동을 통해 나 자신도 변하게 된 것 같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 활동 시작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대학생 기자단 제6기는 약 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선발된 9명의 신규 학생기자와 5명의 기존 학생기자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월 14일 1차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6기를 소개합니다!

						
고금희 단국대 스포츠경영	김민수 고려대 사회체육	김보미 단국대 정치외교	박수지 건국대 국제통상	서다영 덕성여대 중어중문	이규호 성균관대 사회	이소희 상명대 행정
						
이태민 인하대 체육교육	임예람 숙명여대 체육교육	임예지 서울교대 초등교육	정용학 경기대 경영	주연수 동국대 경영	최정인 청운대 공연기획경영	



명지대 축구부 송 준 호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매년 말 진행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식. 지난 12월 20일에도 학업성적과 경기력을 고루 갖춘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의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총 9개의 표창패가 수여되었다. 이 중 축구 부문 최우수상은 올해 4학년 최고참이 된 명지대학교 송준호의 차지였다.

등번호 35번이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송준호는 등번호 8번이 적힌 새 유니폼을 받았다. 처음으로 상향된 번호를 등에 달게 되었기에 송준호가 다가올 2014시즌에 거는 기대는 누구보다 크다. 나이가 우수 학업성취 최우수상까지 수상했으니, 진정한 학생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진 셈이다. 이렇듯 껍경사를 맞은 송준호 덕분에 그와의 인터뷰는 기분 좋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동 하나만 하기에도 벅찰 텐데 학점까지 좋은 이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의 포스 앞에서 팬스레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얇은 긴장감 속에 어떻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에도 전하게 되었냐는 첫 질문을 던졌다. 예상과는 달리 돌아온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냥 밥 먹고 있었는데...”

공부?
It's up to you!

가만히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던 송준호는 조교 형의 부름에 의해 조교실로 직행했고, 성적 확인 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의 신청까지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라는 타이틀. 그는 그저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을 뿐이었다. 실제로 인터뷰 내내 송준호가 가장 강조해 말했던 문장은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였다.

그렇다면 그는 그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던 것일까?

“말은 이렇게 해도 별다르게 노력한 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운동선수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꽤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수업시간에 최대한 졸지 않으려 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누나랑 앉아서 공부했고, 그게 다예요.”

송준호는 강의시간에 졸지 않고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자세로 꼽았다. ‘화요일’ 오후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은 오전 수업 또는 저녁 수업을 듣는 축구부의 커리큘럼이 힘들 범도 한데, 송준호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힘들 때도 있는데,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감독님께서도 일부러 수업 있는 날에는 최대한 경기를 잡지 않으려고 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줘요.”

3년간의 대학 생활

훈련 외에 주어진 대학 생활을 이용해 송준호는 비교적 다양한 수업에 참여했다. 직접 PPT를 만들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반 학생들과 ‘팀플레이(Team Play)’도 해봤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영양학과 전공 수업인 ‘인체 생리학’을 수강해 타과 수업의 분위기도 느껴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강의도 생겼다. 바로 ‘실기교육방법론’.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PPT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실기교육방법론’ 덕분이에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해야 하고, 운동부한테는 굉장히 색다른 과목이지만 얻은 게 많아서 보람찼었거든요. 한 번쯤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송준호는 학교 공부 외에 혼자 일본어도 공부한다. 그저 만화를 좋아해서 공부해보기로 했을 뿐인데 혼자 서점에 가서 사전을 구매해 단어를 외우는 등 열정과 실행력이 대단해 보였다. “배우고 싶은 건 많아요.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도 배워서 연주해보고 싶어요.”

‘훈련시간에는 훈련에 집중, 공부시간에는 공부에 집중’. 송준호의 하루는 뻘뻘할 정도로 꽉 채워져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설 땀 쉬죠. 공부는 컨디션이 괜찮을 때 하는 거여서 힘들지 않고요. 그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힘이 들 땀 친구들이랑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힐링(Healing)해요. (웃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태어나면 운동과 학업 중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송준호는 ‘공부를 해도 잘할 것 같지만, 다시 태어나도 운동을 선택할 것’이라며 장난스럽지만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결혼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축구 외적인 목표보다 축구 선수로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간절한 목표라고 한다.

‘최고보다 최선을’이라는 좌우명을 항상 마음에 새긴 채 앞으로 1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뿌듯함을 이제는 축구선수로서 느끼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박수지



유니폼을 입은
송준호의 모습
=선수 본인 제공



고려대 농구부 이승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매년 운동과 공부를 충실히 이행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착을 앞장서 실천하는 학생선수를 선발하여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상'을 시상하고 있다. 출전 시간 등의 리그 실적, 학업 성적과 학업 병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선수들이 운동은 물론 공부에도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SECOND TO NONE! 그에게 2등이란 없다

2013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농구 부문 최우수상에 빛나는 영예의 주인공은 고려대 체육교육과 11학번이자 고려대 농구부 주장인 이승현. 농구대잔치, MBC배 대학농구대회, 프로야마 최강전, 2013KB 대학농구리그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까지, 4관왕에 오른 천하무적 고려대의 이승현이 이제는 공부까지 섭렵했다. 농구대회 우승에서부터 공부로는 최우수상까지. 'Second To None!' 그에게 2등이란 없나 보다.

농구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이라고 말하는 이승현의 표정은 얼떨떨.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농구 하는 12개 대학 학생선수 중에서는 잘 한다는 거니까 좋죠."라며 수줍게 최우수상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학농구리그에 참여하는 대학이 12개나 있는데 그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선수가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었다는 이승현. 코치님의 권유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상'에 지원하게 된 그의 학점은 4.5 만점에 '3점 중후반' 정도라고 했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학점이 더 높은 후배가 있어요. 내년에 후배도 꼭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후배 사랑을 뽐낼까지 갖춘 진정한 주장다운 면모였다.

진정한 능력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농구부, 팔방미인들만 모여 있나보다. 2011, 2012, 2013 무려 3년 연속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최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해왔다. 2011년 노승준(전주 KCC), 2012년 박재현(서울 삼성)에 이어 이승현까지! "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학생과는 똑같이 공부할 수 없잖아요. 교직 과목은 일반학생들과 같이 듣지만 다른 과목들은 학

교에서 배려해주셔서 운동부 학생선수끼리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교직 수업 같은 경우는 시험이랑 겹칠 때가 많아서 잘 못 들어가요. 그러면 교수님을 따로 찾아가서 대체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먼저 말씀을 드리죠. 또 우리 학교는 좋은 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과제를 편하게 할 수 있죠. 기숙사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PC방 가서 과제를 해야 하거든요."라며 이승현 선수가 생각하는 고려대만의 특별 비법을 전해왔다.

이승현은 체육교육과 일반학생들로부터 학업에 대한 도움을 받는 점이 자신의 학점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같은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여자친구 덕분에 최우수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같은 전공이니까 시험범위나 시험기간도 알려주고 과제도 도와주죠. 여자친구도 시험 봐야할 텐데 항상 제 옆에 있어주면서 공부도 시켜주고 잘 알려줘요."

진정한 능력자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게 아니다. 이승현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다고 했다. 중학교 시절, 저녁 8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두 시간 동안 과외를 받은 후 밤 11시에야 비로소 잠이 들 수 있었다는 그는, 반에서 6, 7등 정도는 항상 놓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했다. "중학교 때는 수업을 다 들어가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학업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오전 수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간 운동도 더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적, 학업과는 멀어지게 됐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어머니에게서 항상 들어오던 말이 있다고 한다. '학점 관리 잘 해라!'

"이번 상 덕분에 효도했죠. 게다가 상금도 탔잖아요." 최우수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200만원. 그리고 상금 받은 지 일주일 후 진

했던 인터뷰. “이미 다 쓰신 거 아니죠?” “반은 어머니 드렸어요. 반은 가지고 있다가 쓸 일 있을 때 개인적으로 써야죠.(웃음)” 이승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효도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안 드리고 어머니만 드렸나요?” “어머니가 돈 관리 잘하시니까요.(웃음) 그리고 아버지는 일 하시니까요.”

엄친아를 넘어서다

명실공히 대학농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한 이승현, 그가 운동뿐 아니라 학업에도 충실한 이유가 궁금했다. “요즘에는 운동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사실 뭘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도자가 되려고 해도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는 거고요.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 놔야 은퇴 후 대책이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 미미미미 준비를 해야 하죠. 노후대책이라고 해야 할까요?(웃음)” 그는 은퇴 후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대학원에 진학해 다시 공부를 제대로 해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농구 지도자가 아닌 체육교사가 되는 것. 돌아오는 1학기에 모교로 교생실습을 나간다고 하니, 예비 체육교사로서의 모습은 조만간 볼 수 있을 듯하다.

엄친아를 넘어서는 이승현, 그는 어떤 대학생일까? “한 번은 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학생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공부만 하더라고요. 저희가 운동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듯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느꼈죠.” 이승현은 당연히 과제도 다 제출한다고 말했다. 야간 운동 끝나고 늦게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마감에 맞춰 과제를 한다는 이승현. 최근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읽고 요약하는 과제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전했다.

수업시간, 그는 결코 뒤에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앞에 앉으면 뒷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어 배려차원으로 앞에는 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조모임도 경험해봤을까? “아쉽게도 그럴 시간은 없어요. 운동 시간 때문에 일반학생들과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수업을 오전에 다 듣고 오후와 야간에 운동을 하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렵죠.” 조모임은 해본 적 없는 이승현이지만 그에게도 똑같이 시험기간은 존재한다. “물론 일반학생처럼은 못해도, 교수님이 알려주신 범위는 꼭 봐요. 일주일 전부터는 계속 보고, 운동 끝나고 보고, 시간 쪼개서 보고 그래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이는 이승현을 보니 괜히 최우수상 수상자가 아니었다. “저희도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무시당할 때 속상하죠.” 운동선수라고 하면 공부와는 담쌓고 살 것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학생선수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



겠지만 이승현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농구가 힘든가요, 공부가 힘든가요?”

“둘 다 힘든 건 한데 제가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앉아서 한 시간 이상을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웃음) 선수들은 자꾸 움직여야 하는데 앉아서 오래 집중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자랑스러운 농구선수 이승현

2014년 체육교육과 11학번 이승현 학생의 목표는 ‘F’ 받지 않고 무사히 잘 졸업해서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 “학업이란 제 미래인 것 같아요. 은퇴 후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나중을 대비한 ‘보험’ 같아요. (박)재현이 형이 대학원 합격하고 엄청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대학원을 들어갈 계획이에요.”

2014년 고려대 농구부 이승현 학생선수의 목표는 ‘국가대표’와 ‘프로진출’이라고 한다. “우선 국가대표의 경우, 제가 많이 바뀌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두 번째는 프로! 드래프트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만약 드래프트 1순위를 해도 그 팀에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로터리픽 밑으로 가더라도 그 팀에서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팀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팀보다는 저를 필요로 하는 팀으로 가고 싶어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1순위... 원하고 있지 않나요(웃음)?”

“누구나 1픽은 욕심을 내죠.(웃음)”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는, 제1의 이승현이 되고 싶다는 그.

‘이승현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그의 바람대로 ‘승현이 형과 함께여서 두려울 게 없는’ 고려대이길, 대학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1년이길, 프로무대에서도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기자단 김예슬



한양대 배구부 안 정 경

‘배움’으로 ‘미래’를 밝히다 한양대 안정경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매년 말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에 참여하며 학생선수로서 공부와 운동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수한 학업성과 뛰어난 경기력을 갖추고 모범이 되는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 종목에서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두어 시상식에 초대받은 학생선수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무슨 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시상식에 왔다가, 시상식에 와서야 자신이 최우수상의 주인공임을 알게 된 학생선수가 있다. 바로, 한양대 배구부의 안정경이다.

운동이 아닌 공부로 받아보는 첫 상. 안정경에게 소감이 어떤지 묻자 “시상식장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최우수상인 줄 몰랐어요.”라고 대답한다. 수상에 대한 감각이 아직 채 가지지 않은 듯하다. “사실 최우수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했죠. 상을 받으러 오라고 하기에 우수상이겠거니 했는데, 최우수상 수상자에 제 이름이 불려서 놀랐어요.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죠.”라며 멋쩍게 웃어 보인다.

공부

운동과 공부.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고 묻자 “당연히 힘들죠. 특히 숙소는 서울캠퍼스에 있는 반면, 수업은 주로 안산에 있는 에리카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시험기간에는 새벽 6시쯤에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안산까지 갔다가 밤늦게 돼서야 돌아와요.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죠.” 수업을 듣다가 졸아서 교수님께서 깨워주신 적도 있다고.

“운동을 끝내고 안산까지 이동해서 수업을 들으면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졸았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처음엔 깨워주시다가 나중엔 이해해주셨어요.(웃음)”

수업을 듣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수업도 빠지는 경우가 많다. “대회나 리그 경기와 겹쳐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왕복만 거의 3시간이 넘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이 항상 아쉽죠. 그래도 같은 수업을 듣는 일반학생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공부하였느냐고 묻자 마치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에서 흔히 하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와 같은 답이 돌아왔다.

“정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시면 과제를 제출했고, PPT를 만들라고 하시면 PPT를 만들었죠. 그게 전부예요.”

최우수상을 받은 그이지만, 과제 하기가 귀찮은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과제를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자꾸



사진출처: 사진출처

미루다 보면 어느새 과제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부랴부랴 과제를 하곤 해요.”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이 가장 어렵다는 안정정. 그래서 ‘승마’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교수님이 주로 영어로 수업하셨어요. 다행히 중간중간 한국말로 쉽게 설명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영어라서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이 과목이 과제의 양도 많고 다 자필로 써야 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재밌었던 수업이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교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들었던 ‘스포츠 교육학’ 수업이 가장 재밌었다고.

“스포츠 교육학수업이 가장 재밌었어요. 교수님께서 운동선수 출신이시라 저희와 통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수업시간에 류현진의 경기를 다 같이 보면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기도 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

‘운동선수에게 공부도 꼭 필요한가요?’라고 묻자 바로 “당연하죠!”라며 “공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

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프로에서 뛰게 될 아마추어선수에게 지금 당장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퇴 후에 배구선수가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할 때는 지금 했던 공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학점에 관해서는 후배들에게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 멋진 선배이다.

“후배들에게 그냥 졸업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점 잘 받아 두라고 항상 말해요. 그렇게 말해도 듣는 애들만 귀를 기울여서 듣지 만요. (웃음) 스포츠 교육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자격증들을 미리 딸 수 있으면 미리 따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격증들을 따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학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력과 배움.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밝힐 수 없다.”고, 지금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안정정이 걸어갈 길은 충분히 밝지 않을까.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민영



호서대 축구부 한상협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다 '축구선수' 한상협

“어떠한 축구선수가 되기보다는 ‘축구선수’ 한상협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떠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지 묻자, 그는 한참의 고민 끝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왜 그 목표를 세웠는지’를 간혹 잊어버리곤 한다. 맨 처음, 우리가 그 목표를 세웠을 때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한 후 고등학교까지 쉴 새 없이 그라운드 위를 달린 그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그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깐했다고, “그때의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바로 ‘공부’였어요. ‘공부’를 하면서 나에 대한 자신감과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에도 생겼고요.”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았다. 중심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휘청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를 만나고 나서 확고한 목표가 생겼다.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선수’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이름 앞에 ‘축구선수’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축구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후에도 더 좋은 축구계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과에서 2,3등을 해서 성적장학금을 받아본 적도 있을 정도로 꾸준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선수 한상협.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그 날 배울 과목들을 미리 훑어본다. 이동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수첩까지 만들기도 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교수님께 찾아가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가 이런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다.

‘학생선수가 꼭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공부를 하다 보니 ‘꼭 필요하다’라고 느꼈다고.

“학생선수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축구에서

필요한 기본 원리나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저는 체육을 하려면 체육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축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다보면 하고 싶은 일이 뚜렷이 보이니까요. 좀 더 꿈을 찾아가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한상협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휴가 시간을 쪼개서 자격증도 땀다. 그가 보유한 자격증은 총 4개. MOS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보디빌딩), 라이프가드, 탁구심판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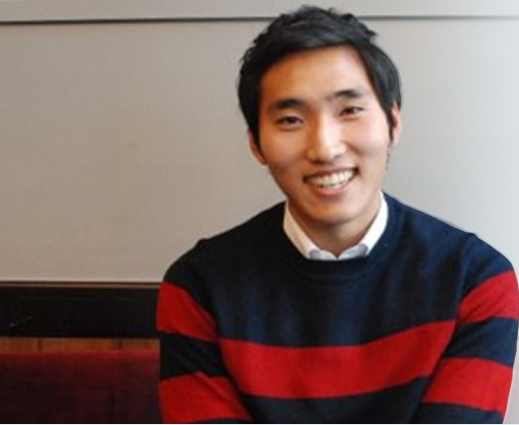
대학생으로의 한상협에 대해 묻자 “축구선수로서도 열심히 했지만, 대학생으로서도 열심히 4년을 보낸 것 같아요. 무엇이든 열심히 했죠.”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그도 영락없는 대학생이었다.

축구를 위해

2010년 푹푹한 모습으로 교정에 들어서던 대학교 1학년의 한상협. 2014년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된 대학교 4학년의 한상협. 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답한다. 공부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축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정표(里程標). 주로 도로 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혹은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뜻하는 말이다. 한상협에게 자신에게 공부는 어떤 의미인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부를 통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앞으로 꿈을 향해 쉼 없이 걸어갈 그를, 그리고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해있을 ‘축구선수’ 한상협을 응원해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민영



동국대 축구부 정찬일

학생선수도 엘리트 코스가 존재한다!

일반학생들에게 영재교육, 명문대 입학 등 ‘엘리트 코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생선수들에게도 ‘엘리트 코스’가 존재한다. 2013학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축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동국대 정찬일도 그러한 코스를 밟아왔다.

정찬일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 꿈나무들에게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차범근 축구상’ 대상(제16회)을 수상했다. 역대 대상 수상자들이 이동국, 박지성, 하대성, 기성용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한국 축구의 스타플레이어들이라는 점만 미뤄보아도 이 상이 학생선수에게 얼마나 큰 영예인지 짐작 가능케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찬일은 호주에서 일명 ‘축구 유학’으로 중학교 시절 3년을 보냈다. 지금은 기성용이 다녔다고 해서 유명한 ‘김판근 축구교실’은 당시에는 축구 꿈나무들에게 봄이었을 정도로 유명했다. 학업관리도 엄격한 시스템이었기에 정찬일은 중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주에서의 3년은 정찬일의 영어 실력도 향상시켰음은 물론이다.

‘성실함’을 무기로 학업을 쟁취하다!

정찬일의 학업 우수상 수상 비결은 높은 학점보다는 성실함이었다. 수업 출석이 가능하면 무조건 출석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과제도 꼬박꼬박 제출했다. 동국대는 훈련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훈련장도 그렇지만 훈련량이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수업 대신 잠을 택하는 학생선수들이 많다. 꿀맛 같은 낮잠을 선택한 친구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을 법도 한데, 정찬일은 학업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었다. 정찬일이 말한 자신의 학업 우수상 수상 비결도 그랬다. “운이 좋았죠. (웃음) 그래도 잠 안자고 수업 들어갔던 게 학교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정찬일

“3학년 때부터 학점관리에 더 신경 썼어요. 1, 2학년 때 학점이 더 좋긴 좋았는데 고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좀

게을러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주의했죠.” 정찬일의 전공은 체육교육 학이다. 4학년 2학기에 팀 동료 이호석과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호석 이랑 제가 예체능 반을 맡았거든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운동했으니까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저희가 축구를 하니까 체육 시간마다 같이 축구도 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자기계발서적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내성적이었는데, 책을 읽는다는 건 저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 같아요. 어휘력도 배우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학 와서는 시간 여유가 없다보니 사실 독서량은 조금 줄었어요.”

‘성실함’을 물려주다

2011학년도에도 동국대 축구부에서 학업 우수상을 받은 선수가 있었다. 정찬일의 1년 선배인 최명희 선수.

“그 형은 진짜 성실함에 있어서 최고예요. 축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다 너무 성실해요.” 어쩌면 최명희 선수의 성실한 모습이 정찬일에게 모범이 됐을 수도 있다. 또 정찬일이 학업에 성실히 임했던 모습도 다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아니 이미 귀감이 됐을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선수가 학업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이 이 이상의 본래 목적일 것이다.

“특pecially 좌우명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모든 일에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정찬일이 힘든 훈련 속에서도 학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프로에 입단한 정찬일에게 앞으로의 각오와 목표를 물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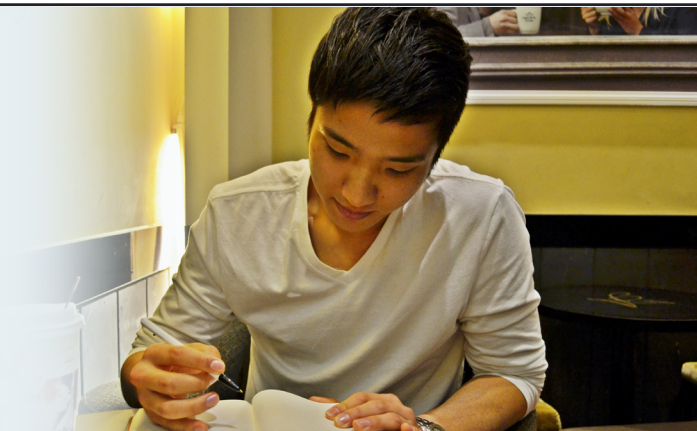
“이제 정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잖아요. 여태까지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언행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지금 몸 상태나 스피드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능력을 좀 더 노력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정찬일’ 하면 정말 열심히 뛰다니면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성실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보미



우수상

명지대 농구부 강호연



여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외모면 외모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가진’ 욕심쟁이가 있다. 비결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다.

PPT는 수없이 만들어봤다. 첫 번째 발표자가 되어도 당황하지 않는 노련한 발표 솜씨와 단 한 번도 A+학점을 놓쳐본 적이 없는 영어. 강의시간에 잠을 자본 경험도 전무하다. 여기까진 영락없는 모범생의 모습. 하지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우수상에 빛나는 강호연에게는 모범생과는 다른 또 하나의 특별한 일과가 있다. ‘농구’.

공부와 운동의 병행, ‘필요’ 넘어 ‘당연한 것’

덕분에 그의 하루는 적잖이 화려해졌다. 엘리트 선수로의 일과만으로도 벅찰 텐데, 일반학생들이 수업을 소화하는 양까지 더해져, 그렇지 않아도 바쁜 대학생의 일상에 곱하기 2배다. 힘에 부칠 법도 하지만 공부와 운동의 병행은 필요를 넘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강호연. 물론, 그가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었던 건 명지대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에 열성적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명지대는 학생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개설하거나, 훈련 및 시합으로 인해 주간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수업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호연이 학업을 등한시하지 않았던 것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다. “상 받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공부를 했으면 하셨는데 결국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죠. 아버지 덕분에 운동 시작한 뒤에도 공부를 멀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호연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구력이 짧은 편이다. 중학교 3학년 말에야 농구공을 잡았기 때문이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기에 농구로 향했던 그의 선택에 아버지는 아쉬움을 삼키셔야 했다고.

배움의 A to Z, 지도자로서의 미래 위한 초석

그러나 그가 학업과 친하게 지낸 것 이 단순히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강호연은 그의 농구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있다. 가까이는 프로에 가는 게 목표지만 멀게는 지도자를 꿈꾼다. 명지대 농구부 선수들은 모두 경기지도학과다. 강호연 역시

마찬가지. 경기지도학과에서 그는 미래에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때문에 <실기교육방법론>이라는 수업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수업이에요. 학기 말에 개인 발표가 있었어요. 농구지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저는 슛 던지는 걸 주제로 발표했죠. 동영상도 보여주고 직접 시범도 보이면서 발표했는데 교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학점도 당연히 A+였죠(웃음).” 경기지도 외에 교양 수업에서 기초 지식을 쌓는 것 역시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듣는 수업 인지라 녹록치만은 않은 게 현실. 강호연은 이런 어려움을 ‘교수님 맞춤형’ 학생이 됨으로서 풀어나갔다. “수업 내용이 어렵다거나 하면 교수님이 주문하시는 대로 따르면 돼요. 실력이 안 되면 하려는 의지라도 보이자는 거죠.

‘명지대= 강호연’ 농구부 대표하는 간판선수 되고파

이렇게 배우는 자세까지 남다른 강호연. 하지만 그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한다. “농구를 잘해서 상을 받아야 할 텐데...” 강호연은 아직은 명지대의 Best5가 아니다. 저학년인 탓도 있지만 지난 시즌에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출전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시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이제는 허리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올해는 꼭 주전으로 뛸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죠. 지금 ‘명지대’하면 (김)수찬(경기지도4/188cm, G)이 형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수찬이 형처럼 ‘명지대’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공부하라, 운동하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의 연속.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시간조차 부족하지만 강호연은 말한다. “많이 부족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하면 1분이었던 출전시간이 2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끊임없이 준비해야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는 그의 좌우명이다. 꿈을 위해 험난한 길도 기꺼이 걷는 선수, 강호연.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자신을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승승장구할 강호연의 2014 시즌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해은



고려대 농구부 김 지 후

2013년은 김지후에게 특별한 한 해였다. 김지후가 속한 고려대는 첫 대회인 농구대잔치부터 프로-아마최강전, 정기전, 대학농구리그까지 대회마다 우승을 거머쥐었다. 고려대가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김지후는 고비 때마다 시원한 3점 슈트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학 최고의 3점 슈터로 자리 잡은 김지후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농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김지후의 대학생활을 들여다본다.

의외의 수상 뒤에 숨겨진 성실함

“제가 받을 줄 몰랐어요.” 다른 대학에 자신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선수가 많으리라 김지후는 생각했다. 생각지도 못한 수상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많이 놀랐다고 한다. 오전 아홉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의 수업에 이어 세 시 반부터 여섯 시까지의 훈련. 쉴 틈 없는 일과 속에서 공부와 농구 두 가지를 병행하느라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다 한 김지후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교수님과 소통하기 위해 메일도 보내왔고, 교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 시간에 앞에 앉아서 꼼꼼히 필기를 했어요.”라며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였다.

그의 든든한 도우미, 누나들과 팬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비결로 성실함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 김지후는 과제가 어려워서 막힐 때마다 누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두 명의 누나가 있는 한집안의 막내아들이다. “밤을 새워가면서 과제를 하는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이럴 때마다 누나들이 틀을 잡아주면 저를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과제를 해서 위기를 잘 넘겼죠.”

대회 출전 후 며칠 남지 않은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안간힘을 쓰던 김지후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들어 왔다. 수업을 같이 들은 한 여학생이 수업내용이 정리된 공책을 건네주었던 것이다. “메스컴을 통해

저의 활약을 보고 팬이 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책을 전해준 적이 있었어요.”라며 자신에게 생겼던 일을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하였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거둔 좋은 성적을 통해 얻은 유명세로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운동이 모든 게 아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까? 밤을 새우면서까지 과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김지후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 대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써먹어야 하는데 운동만 했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라며 학생선수도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다. 은퇴 후에 지도자보다는 스포츠 관련 사업가를 꿈꾸는 그에게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과목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꼽았다. 영어회화도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 그는 프로에 가더라도 영어공부만큼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14년은 나의 해로 만든다!

2013년은 공부와 농구 모두 김지후 자신이 목표로 했던 보다 성과가 많았던 해였다고 되돌아보았다. 공부는 해가 갈수록 이해가 가는 내용이 많아졌고 열심히 공부하여 상도 받았다. 농구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고 신기성 코치로부터 “이제 농구선수가 된 것 같다.”라는 말도 들었다. 훌륭한 농구선수가 되기 위한 도약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의 목표로는 “상 받았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는 프로로 데뷔하게 되는 중요한 해인데 관계자들에게 저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싶어요.”로 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좌우명인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지 말자’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에게 달려있다. 롤모델인 조성민처럼 완벽한 슈터가 되고 팬들에게 정직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농구 선수로 비취질 2014년이 되길 바라본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기자단 이규호



충남대 배구부 김한결



2013년 10월, 대학스포츠 블로그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로 선정돼 인터뷰했던 김한결. 공부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그는 2013학년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운동 끝나고 힘들어도 시간을 쪼개 공부한 노력의 보상을 받은 느낌이라는 그는 정말 뿌듯해서 표창패를 책상 가운데 놓고 책을 펼치기 전에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충남대 배구부는 학생선수들이 운동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훈련 일정을 조정하고, 학생선수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체육부 기숙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학생들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한다. 이렇듯 학교가 학생선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한결은 학업이 보장된 충남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김한결은 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손에 들고 공부를 한다. 심지어 ‘법대생’, ‘도서관 경비원’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는다. 이러한 별명을 증명하듯 그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김한결은 공부와 운동의 병행으로 힘들고 지칠 때면 정신상태가 나태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때마다 코치선생님께서는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 이어 그는 코치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Good bye 2013, Hello 2014

모든 학생의 방학 기간인 지금, 운동선수들에게 동훈련이란 곧 지옥이다. 운동선수들은 운동강도, 운동량 등

모든 부분에서 사계절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훈련을 소화한다. 김한결도 예외가 아니다. 그에게 방학 중 일과에 대해 물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운동을 하고,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배구부 공부방에서 자율학습을 해요. 졸음방지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코치선생님과 함께 하죠.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오후 운동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선수들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 10시 정도까지 코치선생님과 함께 임용 인터넷강의를 시청해요.”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가진 만큼 김한결의 방학은 어느 학생들보다 바쁘게 돌아간다.

김한결은 이전 인터뷰에서 교육자의 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에게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라고 묻자 그는 “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대학교 생활 중에 마지막 4학년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한다. “눈 딱 감고, 1년 동안 공부랑 운동만 하려고요. 이 마지막 4학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만 단축해서 공부와 운동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김한결에게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청소년 심리상담사, 대학생 기자, DJ 등 교집합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를 언급했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갔다. 또한 그는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분야에서 행복을 찾고 항상 즐겁게 생활하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선수이고, 교육자라는 꿈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대학생이다. 운동선수로서 선 코트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 선 강의실에서도 계속해서 그가 꿈꾸는 목표와 바람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임예람

경기대 배구부 김 영 민



2013년 12월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한국대학교 스포츠총합의회 정기총회 시 2013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식이 열렸다. 경기대 배구부 김영민은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배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라 조금 더 특별해요. 주변 분들이 많이 축하해주셨고,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아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실 학생선수에게 공부와 운동의 병행은 힘든 일이다. 아직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 자체에 학생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훈련과 시합이 한창 수업 시간에 열린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에서 학생선수들에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는 사실 1,2학년 때 선배들이 운동을 정말 잘해서 ‘아, 나는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으로 운동보다 공부에 더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형들이 일찍 프로에 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래도 작년을 생각해 보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지요.”

김영민이 학점을 잘 받고, 우수 학업성취 우수상까지 받은 비결은 ‘친구’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해요! 저는 선배들을 잘 사귀 편인데, 선배들이 시험범위도 알려주고 시험공부 할 자료도 주세요.” 그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운동선수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배구의 강자라 불리는 경기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훈련 때문에 종종 수업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면 김영민은 선배들에게 시험범위를 묻기도 하고, 빠진 수업의 강의 내용을 전달받기도 한다. 이때 고마운 선배들에게 드릴 커피 한잔도 잊지 않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물었다.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인데, ‘진로 탐색’이라는 수업이요.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수업이에요. 그때 교수

님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학점도 잘 나왔나?) 그 수업은 P/F 수업이어서 학점을 신경 쓰기보다 진짜 진로에 대해 고민한 것 같아요.”

김영민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구를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체육관에 갔다가 운동을 시작했다. 그 후, 그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운동을 그만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에 열중했다. 하지만 우연히도 배구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대학교 1,2학년 때, 김영민은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운동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기도 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배구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고, 원하는 것이었다. 김영민의 꿈은 여느 선수와 마찬가지로 ‘프로 진출’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후, 은퇴하게 되면 유학을 가서 스포츠재활을 공부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가 영어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대는 4학년이 되는 학생선수들이 일찍 드래프트에 나가 프로에 진출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제 3학년이 되는 김영민과 그의 동기들이 최고 학년이 되었다. “형들이 일찍 나갔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배구에 더 전념해서 저 자신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김영민은 자신의 장점은 ‘꾸준한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을 하나라도 꾸준히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김영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영민이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인터뷰하는 동안 진지하게 임하는 김영민을 보고, 생각이 깊고,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선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4년은 학생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그가 흘린 땀방울과 쏟은 노력만큼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란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임예람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장호성 총장, 아시아태권도대회 대회장으로 참석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2013년 10월 31일 충남 청양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대회의 개회사를 하였다. 이번 대회는 장호성 총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AUSF(Asian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에서 주최하고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관한 대회로서 아시아 27개국 5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한편, 장호성 총장은 10월 1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전국 51개 대학의 LINC사업단,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3 LINC사업 종합컨설팅 Fair'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면·현장 컨설팅 사항을 기초로 대학 간 LINC사업 성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대학의 자율 컨설팅'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자수박물관 허동화 관장에게 명예미술사학 박사학위 수여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 관장에게 명예미술사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전통 자수와 규방문화재를 수집·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우리나라 미술사학 발전에 기여한 허동화 관장은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크게 공헌해왔다.

유병진 총장은 식사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자수, 보자기, 생활용품 등 우리나라 전통 규방문화재의 발굴과 수집에 헌신하셨고, 자칫 영원히 소실될 수도 있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남기시고, 한국의 선과 색의 아름다움을 지켜내신 허관장님의 업적에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웃의 인문학 수료식 수료증 수여



김기연 경기대 총장은 지난 12월 26일 수원캠퍼스 진리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웃의 인문학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경기대와 경기도는 노숙인들 30여 명의 사회 복귀를 위해 올해 처음 특별한 강좌를 마련했다. 지난 9월 초부터 시작된 강의는 글쓰기와 철학, 미술, 체육 과목으로 구성,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30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조극훈 교수 등 본교 교수 5명이 참여해 이들을 지도했다. 참가 노숙인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내년부터는 수업 횟수를 주 2차례(모두 40차례 이상)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희망자에 한해 경기대 정규과목을 청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동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2011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으로 개최지 확정됨에 따라 강릉지역에 소재를 둔 60년의 전통을 지닌 관동대(총장 이종서)는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관동대 캠퍼스 내에 '아이스하키 II 경기장'이 건립되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캠퍼스로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관동대 국제교류교육센터에서는 올림픽을 대비해 지역민에게 중국어, 영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대회기간 중 방문하는 선수, 관광객을 위하여 지역 문화에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



난 9월에는 강릉시청, KBS강릉방송국과 함께 2018 동계올림픽 기간 중 친절과 미소올림픽으로 발전시켜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성장함과 아울러 우리 대학도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원더풀 스마일 캠페인' 협약식을 갖기도 하였다. 대학은 협약을 통해,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강사진 선정, 각종 자료 및 자문을 통해 시민의 참여의식 향상과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명대학교 제10대 구기헌 총장 취임



구기헌 상명대 총장이 2013년 9월 24일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구기헌 총장은 1988년 상명대 천안캠퍼스 프랑스어문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교무처장, 어문대학장, 부총장, 기획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날 상명대 밀레니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구 총장은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대학 간의 무한경쟁이 이미 본격화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연구역량 강화, 내실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집행, 국제화 강화 그리고 대학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운대학교 제9대 천장호 총장 취임



천장호 광운대 총장이 2014년 1월 10일 제9대 광운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천장호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14년 1월 10일부터 4년간이다. 서울 출신인 천 총장은 서울고와 광운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고, 1980년 문교부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Stevens Inst. of Tech. 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광운대 출신으로 수석입학과 수석졸업을 한, 천 총장은 광운대 교수, 대학원장, 부총장을 거쳐 최근까지 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을 위한 협력체결



임해철 홍익대 총장은 지난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안에 설립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콘텐츠 창작자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실험과 교류·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창작자 지원 시스템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410호
전화: 02-707-3767 팩스: 02-707-3766
www.kusf.or.kr